

## 소아치과환자와 치과의사의 태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조교수 梁 精 康

요즘 치과를 찾는 어린이들은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1961년 11월호 "Dental Clinics of North America"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우리들 대부분이 기억할 수 있겠는데 치과를 찾아온 어린이들은 우선 다루기가 힘들고 또 수업에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 해서 모두들 싫어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몇몇 치과의사는 이러한 태도로 용기를 잃지않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좀더 좋은 치과치료를 해줄 수 없을까 걱정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었지……."

이 이야기는 수십년전 미국에서의 소아치과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만 바로 지금의 우리들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들 주위에는 소아치과 환자는 귀찮아 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즉 치료가 힘이든다. 보호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치료에 대한 보수도 충분치가 않다는 등의 이유가 있게 된다. 그러나 주로 아이들만을 진료해서 얻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사들의 의욕이나 책임감이 문제이지 대부분의 소아치과 진료 내용에는 특별히 어려운 술식을 요하거나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물론 두세살 짜리 어린이들이 유치 20개가 채 다나기도 전에 여러개의 심한 충치를 갖고 치과를 찾아오는 경우 같은 것을 대할 때에는 어려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올바르지 못해서 유치는 같이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묻는 환자에게 유치의 중요성 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대신에 이 무지한 이들의 뜻대로 따라가는 치과의사가 많은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소아치과를 올바르게 안내하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자기는 도저히 성격상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없다든가 또는 능력이 미

치지 못하면 어린환자들을 즐겨서 진료하는 동료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이에게 의뢰하는 것이 체면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여 대강 손을 대주고 또 아프면 다시 오라고 일러주는 식의 태도는 여러모로 반성해야 될 문제이다.

우선 어른 환자와 동등하게 또는 더 잘 대접 받아야 될 어린환자들의 구강진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을 크게 저 버리는 일이고, 대강 해준 치료가 계속 어린이에게 불편을 주고 새로운 이상을 유발할 때 오는 치과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어제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다. 두아이의 어머니 되는이가 큰 아이는 치과를 여러차례 다녀 보았는데 봉해준 것이 몇일안가서 하나씩 빠져 버리기에 유치에 해주는 치료는 모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두째 아이는 뿌리만 남은 치아가 여러개가 되도록 씹세 아플때에만 가까운 치과를 다니거나 진통제로 지냈는데 대학부속병원에는 소아치과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되어 찾아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유치는 왜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일이나 올바른 치료를 기피하는 일 또는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옮겨 되지않아 오히려 아까운 시간과 노력만 없애는 일이 많은 사실은 구강 보건에 대한 계몽은 그 순서가 일반들에 하기 앞서서 우리 치과의사 스스로가 먼저 계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주위에서도 어린환자들을 즐겨서 성심껏 진료하는 이들의 경험에서나 학교부속병원 소아치과의 실정을 살펴보면 시술에 대한 보수 즉 수업의 면에서도 치과의 다른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근관치료라든지 치주치료, 소아치과 진료같은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오로지 발치와 보철에만 관심을 쏟으면

서 치과의사의 영세성을 내 세우는 풍조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치과의사는 치료에 못지 않게 많은 시간을 환자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해서 또 치과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할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잠시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상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약 5년전 서울치대 소아치과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4살된 서울아이들에게 평균 7개의 충치가 있으며 농촌아이들에게는 4개의 충치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수일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유치원 아동 80명의 구강 검사를 한 일이 있는데 76명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평균 6개 충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27명이 Space Maintainer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중 37명은 1개 이상의 아말감충진을 갖고 있었는데 치과의사의 철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심껏 아말감충진 Stainless Steel Crown 또는 Space Maintainer까지 잘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치과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아니 우리들의 성의있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치과의사 모두가 어린이환자들을 즐겨 진료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답은 결국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치과의사들의 의욕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잠시 눈급한 바와 같이 소아치과의 진료 내용을 보면 치과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즉 아말감충진 치수치료 Stainles Steel Crown, 발치, Space Maintainer, 예방교정장치 불소도포, Home Care Instruction등이 대부분의 소아치과를 찾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점이 될만한 것을 분류해 보면 몇가지가 될 수 있겠다. 즉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를 높여야 되는점. 이에 따른 소아치과는 시간과 정력만 들고 수입이 적다는 수익성 문제의 해결 그리고 투약이나 하고 주사 정도로 그치는 소아과와는 달라서 긴 시간을 치료의자에 앉혀야 되는 까닭에 어린이를 부서워하지 않도록 잘 다루는 문제 즉 어린이의 협조가 없이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나서는 치료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술식의 습득이 문제가 되겠다.

우선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를 높이는 일은 다른 사람아닌 바로 우리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이다. 치료실에서 진료하는 동안에 하는 계몽,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집단적으로 구강보건 문제

를 교육시키는 방법,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또는 라디오, T.V, 신문, 잡지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강보건 특히 소아치과의 인식을 높이는 안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몽에는 모든 치과의사가 소아치과 환자를 훌륭하게 진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뒤 따라야 제대로 계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소아치과의 수익성 문제도 성심껏 훌륭한 치료를 하고난 후에는 충분한 보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여러개의 치아가 빠져서 저작에 큰어려움이 있다거나 전치부의 결손이 있어 심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치과의 도움이 뚜렷한 경우라면 구태어 치료의 목적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유치는 같이니까 잘 치료할 필요는 없고 그저 당장 아픈 것만 없애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므로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정력으로 치료나 예방에만 우선적으로 몰두해서는 충분한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즉 치료나 예방적인 조치에 앞서서 부모에게 어린이의 구강상태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에 필요한 모든 치료나 예방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최선의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권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치료 권고를 받아드리고 안받아 들이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를 받아드리는 경우에는 응당한 보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 보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어린이환자가 치과에 오면 치과를 찾아온 목적을 비롯해서 앞으로 진료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묻게되고 구강내를 검사하고 나서 필요하면 X-선검사를 하게 되며 우선 첫날에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치료로 국한해서 시술하는 것이 좋고 이날 부모에게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진료내용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발치 2개, 보존 치료 8개, Space Maintainer 2개, 불소도포 Toothbrushing instruction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치료를 모두 끝내려면 치과에는 5-6회는 와야겠다고 설명해 준다. 실제로 경험한 바로도 부모들에게 자세히 진료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 반응이 매우 좋아서 그 후에도 계속 훌륭한 환자가 되지만 혹시 환자가 밀리거나 술자가 시간애 쫓겨서 자세한 설명을 앎는 경우는 제대로 치과에 나오지 않는 수가 많았다. 눈에 크게 뜨이는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매우 고마워 하지만 그 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커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은 질병의 자세한 진행과정을 모르는 일반 부모들에게는 그 가치를 의사가 설명해 주기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늘어만 가는 어린아이들의 충치이환율은 엄연한 사실  
입에도 불구하고 적은 노력으로 큰 대가만을 기대하는  
발치와 보철 중심의 치과를 지속하면서 계속 영세성을  
한탄할 것인가?

일단 치과에 까지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성실히 안내  
하고 설명하고 치료하면 응당한 보수가 얼마든지 가능  
한 것을 아이를 치료는 귀찮다고, 충분한 보수가 없다  
고 아니면 제대로 치료해 줄 능력이 없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무진장의 환자를 내게로 이끌지 못하고 내쫓는 일은  
많아도 이웃의 우리 동료들이 환자를 빼앗는 일은 없다  
고 생각된다. 여러 동료 치과의사들이 푸대접 하는 어린  
아이들을 성실히 진료해서 치과를 재미있고 보람있게 해  
나가는 이들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팔라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차호에는 “소아치과를 위한 심리학 및 치  
료”에 대하여 기술함).

<p>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一切 具備</p> <p><b>清涼齒科材料商社</b></p> <p>梁 海 秀</p> <p>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58</p> <p>TEL (96) 1110</p>	<p>齒科用 醫療機器에 쓰이는 電氣施設 및 電氣用品問議는</p> <p><b>電 研 社 로</b></p> <p>代表 閔 丙 駿</p> <p>電話 (26) 2589</p>
--	---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 賣買 · 修理 · 配達 —

**瑞 一 齒 材 商 社**

代表 朴 陽 淳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8의 6

電話 (22) 7 2 7 5 番